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역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강릉아산병원 영상의학과¹,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연구소²

나동규¹, 백정환²

History of 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

Dong Gyu Na¹ and Jung Hwan Baek²

Department of Radiology, Gangneung Asan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¹, Gangneung, Department of Radiology and Research Institute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², Seoul, Korea

The 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 (KSThR) was founded as an affiliated subspecialty society of Korean Society of Radiology in 2010. The KSThR was originated from the thyroid radiology research committee which had started within the Korean Society of Neuroradiology in 2005. In the beginning, the research committee was organized to make a clinical guideline for ultrasonography (US) diagnosis and US-guided biopsy of thyroid nodules to cope with the rapidly increasing role of US imaging and the increasing burden of US-guided biopsy for thyroid nodules in the early 2000s. The KSThR proposed a subspecialty of thyroid radiology which is a medical subspecialty dealing with the imaging-based diagnosis and interventional treatment of thyroid disease. The KSThR has made an effort to make an advance in the research of thyroid imaging and intervention, which could provide scientific evidences for imaging-based management of nodular thyroid disease and thyroid cancers. The KSThR has published clinical guidelines of diagnostic imaging and interventional management of thyroid nodules, which included the US diagnosis and imaging-based management, fine-needle aspiration, core needle biopsy, and radiofrequency ablation therapy in thyroid nodules. The KSThR has a miss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of imaging-based management of thyroid disease, and the KSThR will make an advance in collaboration with Korean Thyroid Association.

Key Words: Radiology, History, Diagnostic Imaging, Ultrasonography, Thyroid diseases

서 론

갑상선영상의학은 영상을 기초로 갑상선결절 및 질환의 진단(영상진단 및 세포, 조직 검사)과 비수술적 인터벤션 치료를 담당하는 영상의학의 세부 전문 분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이전에는 갑상선질환에서 영상의학의 임상적 역할이 크지 않았으며 두경부영상의학의 한 영역으로만 간주하여 왔으나, 갑상선결절 질환 및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 결정에서 초음파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초음파유도하 세침검사의 활용이 급속

히 증가하면서 갑상선결절 환자의 증가와 함께 갑상선영상의학의 체계화 필요성이 임상적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2000년 중반 이후 갑상선결절의 비수술적 중재적 치료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갑상선영상의학의 학술 및 진료 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갑상선영상의학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립되었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탄생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의 갑상선연구회에서 출발하였다. 갑상선연구회는 2005

Received March 29, 2018 / Accepted May 8, 2018

Correspondence: Dong Gyu Na, MD, PhD, Department of Radiology, Gangneung Asan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38 Bangdong-gil, Sacheon-myeon, Gangneung 25440, Korea

Tel: 82-33-610-4310, Fax: 82-33-610-3490, E-mail: nndgna@gmail.com

Copyright © 2018,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년 4월 28일 11명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강남성모병원에서 시작되었다. 갑상선연구회 초기 모임의 주요 목적은 갑상선결절의 초음파유도하 세침검사의 권고안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에는 건강검진 등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결절 진단이 각 의료기관에서 증가하면서 초음파유도하 세침검사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그 적응증은 국내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러 요인에 의하여 과다하게 세침검사가 수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갑상선결절의 초음파유도하 세침검사에 대한 검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근거 중심의 검사 적응증, 임상적 의의, 검사 기법 표준화의 정립과 새로운 기법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 등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갑상선연구회는 “갑상선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중재적 치료를 포괄하는 갑상선영상의학의 학술, 교육, 연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2006년 1월부터 월례집담회가 시작되었고, 10월에는 갑상선연구회에서 마련한 첫 갑상선결절 진료권고안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표되고, 2006년 12월에는 대한영상의학회 처음으로 제1회 갑상선영상의학 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연구회는 2007년에는 갑상선 진료에 필요한 갑상선영상의학 교과서 발간을 준비하였고 다기관 연구를 계획하면서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2007년 1월 처음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 hands-on workshop이 개최되었고 그해 8월에는 대한영상의학회를 대표하여 대한갑상선학회 발기인 대회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대한갑상선학회 창립대회에 대한영상의학회 대표로 참여하였다. 2008년 10월 영상의학회에서는 처음으로 갑상선연구회 주관의 갑상선영상의학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2009년 3월에는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에서 대한갑상선영상의학연구회로 독립하였고, 7월에는 갑상선고주파절제 권고안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대한갑상선영상의학연구회는 2009년 10월 21일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산하 학회로 인준되어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9년 12월 첫 총회를 열어 회칙을 인준하고 2010년 1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창립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창립 후 발전 과정

갑상선영상의학은 90년대 중반 이후 갑상선결절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 결정에서 초음파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빠르게 발전하는 학문영역으로 갑상선결절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해 왔다. 갑상선영상의학은 영상을 기초로 한 갑상선결절 및 질환의 영상진단, 조직검사 및 비수술적 인터벤션 치료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며,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갑상선영상의학 분야의 학문, 교육, 진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2010년 대한영상의학회 산하 학회로 창립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창립 이후 학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발전해 왔다.

갑상선영상의학회는 창립 후 2010년부터 2개월마다 월례집담회 정기 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연수교육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립 전후로 2009년 갑상선영상의학회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2010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로고를 확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뉴스레터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2006년 갑상선연구회의 정회원 수는 68명이었으나, 갑상선영상의학회 창립 후에 2010년 181명, 2012년 256명, 2014년 301명, 2017년 현재 366명으로 증가하였다. 갑상선영상의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들은 나동규(2010-2015, 휴먼영상의학센터), 이준형(2016-2017, 동아대) 교수였고, 현재 회장은 백정환(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다. 또한, 2010년 부산지역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갑상선영상의학회 부산지회가 창립되어 자체적인 집담회 등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갑상선영상의학회가 창립 이후 전개한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학술 사업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2010년 1월 17일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년을 주기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 제3회 갑상선영상의학회 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를 겸하여 제43회 Annual Congress of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제4회 Asian Conference on Ultrasound Contrast Imaging과 함께 Joint Congress of Medical Ultrasound in Seoul을 대한초음파학회(KSUM)와 코엑스

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당시 제1회 International Thyroid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Non-surgical Interventional Management 주제 session에서 국외 연자로 Hossein Gharib (미국), Enrico Papini (이탈리아), Laszlo Hegedüs (덴마크) 교수가 초청되어 참여하였다. 2018년 5월에는 제2차 International Thyroid Symposium을 아시아초음파의학회와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학술대회는 매년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갑상선영상의학 분야의 최신 지견과 정확한 학술정보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를 포함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해 왔다.

연구 사업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창출하기 위해 갑상선영상의학 분야에서 개별 연구의 지원, 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다기관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적 연구 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2013년 1월부터 회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세미나를 2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갑상선영상의학회의 여러 회원들의 개별적 연구 및 다기관 연구에 기초한 연구 결과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회 및 회원들의 연구 결과들은 최근 주요 진료지침서들에서 의학적 근거로 다수 인용되고 있다. 2008년 Radiology에 출간된 학회 주관의 첫 다기관 연구는¹⁾ 2013년-2016년 사이에 출간된 갑상선결절에 관한 연구 논문 중에서 가장 높은 인용지수를 갖는 연구로 평가되는 성과가 있었다.²⁾

교육 사업

갑상선영상의학 연수교육이 2006년 12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후 2010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가 창립된 이후에도 갑상선영상의학의 영상진단, 조직검사, 인터벤션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2017년 12월까지 매해 연수교육이 개최되었다. 연수 교육에서는 국내외 갑상선영상의학의 변화를 반영한 보수 교육 및 진료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진료 가이드라인의 보급이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갑상선영상의학 인터벤션 치료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에 Intensive Hands-on Workshop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래진료, 세침흡인 검사 및 중심생검의 시술 방법, 에탄올 및 고주파 색전술 치료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진료 권고안 및 간행 사업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8년 “갑상선결절의 영상진단 및 중재 시술”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그 후 제2판을 2013년에 출간하였다. 갑상선영상의학 진료 영역은 새로운 의학적 근거들이 지속해서 제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진료지침 변화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학회에서는 각 갑상선영상의학의 진료 영역에서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적절한 진료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갑상선영상의학의 각 진료 분야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지속해서 발행해 왔으며, 창립 이후 2011년부터 6편의 진료권고안들이 출간되었으며, 2018년에는 에탄올 절제술 권고안과 고주파절제술 개정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출간된 진료권고안들은 갑상선결절 초음파 진단 및 진료권고안(2011),³⁾ 갑상선고주파 치료 진료권고안(2012),⁴⁾ 갑상선결절의 중심부바늘생검 진료권고안(2013),⁵⁾ 갑상선결절의 세침흡인검사 진료권고안(2015),⁶⁾ 갑상선결절초음파 진단 및 진료권고안 개정안(2016),⁷⁾ 갑상선결절의 중심부바늘생검 진료권고안 개정안(2017)⁸⁾이다.

결 론

갑상선영상의학회의 미래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갑상선영상의학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갑상선영상의학 분야의 학술, 교육, 진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립되었으며, 갑상선 진료영역에 함께 참여하는 타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 연합학회인 대한갑상선학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갑상선학의 각 전문학회들의 발전이 관련 여러 전문학회들과의 협조와 공동 발전 속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공동 노력을 기반으로 각 전문학회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함께 발전하려는 노력을 통한 공동 발전은 궁극적으로 각 전문분야를 포함한 갑상선학의 학문적 발전과 갑상선 환자 진료에 이바지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내외의 갑상선학의 학문적 발전 및 갑상선 진료에 기여하기 위해 갑상선영상의학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심 단어: 영상의학, 역사, 진단영상, 초음파, 갑상선결절.

References

- 1) Moon WJ, Jung SL, Lee JH, Na DG, Baek JH, Lee YH, *et al.* Benign and malignant thyroid nodules: US differentiation--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Radiology* 2008;247(3):762-70.
- 2) Cooper DS, Anton B. *The decade in clinical thyroid disease: an analysis of published literature.* *Thyroid* 2016;26(8):993-1003.
- 3) Moon WJ, Baek JH, Jung SL, Kim DW, Kim EK, Kim JY, *et al.* Ultrasonography and the ultrasound-based management of thyroid nodules: consensus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Korean J Radiol* 2011;12(1):1-14.
- 4) Na DG, Lee JH, Jung SL, Kim JH, Sung JY, Shin JH, *et al.* Radiofrequency ablation of benign thyroid nodules and recurrent thyroid cancers: consensus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Korean J Radiol* 2012;13(2):117-25.
- 5) Baek JH, Na DG, Lee JH, Jung SL, Kim JH, Sung JY, *et al.* Core needle biopsy of thyroid nodules: consensus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J Korean Soc Ultrasound Med* 2013;32(2):95-102.
- 6) Lee YH, Baek JH, Jung SL, Kwak JY, Kim JH, Shin JH, *et al.* Ultrasound-guided fine needle aspiration of thyroid nodules: a consensus statement by the 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 *Korean J Radiol* 2015;16(2):391-401.
- 7) Shin JH, Baek JH, Chung J, Ha EJ, Kim JH, Lee YH, *et al.* Ultrasonography diagnosis and imaging-based management of thyroid nodules: revised 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 consensus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Korean J Radiol* 2016;17(3):370-95.
- 8) Na DG, Baek JH, Jung SL, Kim JH, Sung JY, Kim KS, *et al.* Core needle biopsy of the thyroid: 2016 consensus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from 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 *Korean J Radiol* 2017;18(1):217-37.